

<중국사무소>

중국문화산업 이슈페이퍼

2008년 8월 1주

KOCCA 중국사무소

□ 목 차

1. 북경 동만게임 산업의 5대 우세.....	3
---------------------------	---

1. 북경 동만게임산업의 5대 우세

2008-1-29 화귀산(花果山)

북경시 신문출판국 관련 인사는 '동만게임산업기지 건설'포럼을 통해 북경시 동만게임 발전의 5대 우세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문화우세; 둘째, 시장우세; 셋째, 과학기술 교육 인재 우세; 넷째는, 전과 경로의 우세인데 북경의 인터넷, TV네트워크의 보급률은 모두 전국 1위이다. 다섯째는 올림픽과 체제 개혁 창조 우세이다. 제29회 올림픽대회는 동만기업에 얻기 힘든 시장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북경시 문화체제개혁의 성과는 출판업의 산업 정책을 개선 시켰다.

동만게임산업은 현대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산업이며 문화창의산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시장 잠재력이 거대하다. 20세기 이래, 경제가 전화되면서 미국, 일본, 한국을 대표로 한 동만산업은 이미 제일 활성화된 산업으로 부상했다. 국제적으로 2004년 전 세계 산업 생산액은 이미 28억위엔에 달했으며 미국의 동만게임 산업 생산액은 이미 연속 4년 영화산업을 초월했다.

중국 동만산업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국제 전문 수치조사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중국 게임시장에서 온라인 게임 부분의 생산액만 65.4억위엔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문출판총서는 북경, 상해, 성도, 광주, 대련, 석가장 등 지역에 동만 게임산업 발전 기지를 설립하는것을 비준했으며 많은 성시들도 동만 산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출시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 하에 각지의 동만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북경시 신문출판국 인터넷 음반영상처 부처장 만상위이(滿向偉)에 의하면 현재까지 북경시 동만게임 관련 기업 수가 총 500여개가 있는데 2006년 온라인게임 생산액은 6.9억위엔으로 성장률 30%를 기록함으로써 전국의 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외 북경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전국의 15%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북경시 게임산업 자체 연구개발은 계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발행 대리도 1위이다. 동만게임 상품 또한 해외 시장을 개척해 해외 시장 수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중에서 킹소프트 한 업체만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산업 기지구역을 형성했으며 창작, 출판, 운영, 발행 및 상품개발을 포함한 산업고리를 초보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전국 동만산업 발전 중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였다.

북경시 동만산업 발전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집중도가 비교적 낮으며 상품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적다. 둘째, 최첨단 인재가 부족하며 개방된 국제 시야와 창조 능력이 부족하다. 셋째, 정책환경에 문제가 많으며 지원 시스템이 아직 건립되지 못했다. 넷째, 통일된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북경시 문화 창의 산업 발전 계획 중, 특히는 북경에서 전국 동만과 게임산업 연구개발 제작 교역센터를 설립할 데 대해 제출했다. 북경시 신문출판국은 최근에 북경시 동만산업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정책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책 벤처투자기구 격려 및 지지, 동만게임기업에 투자

하고 북경시 우수 창작 동만산업의 창작 생산을 지지하며 동만 공공기술 서비스 시스템의 동만 산업 고리를 구축하고 동만 경제 프로젝트 추진에 초기 지원을 제공하는 등등 내용이 언급 될것이다.. 이외에도 또 국가급 대상을 받은 동만상품을 장려할 것이다.

북경시가 동만 게임산업의 발전을 격려하는 정책 내용: 동만산업의 서비스 수출 지원; 인재 양성, 주로 중국 국내에서 선진 수준의 교육 기지를 건립하고 교육기구와 기업이 동만 기업 인재 기지를 설립하며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여 동만게임 기업들들을 유치한다. 이외 북경 동만게임 협회를 설립하고 통일된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산업 발전 상황을 감시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 온라인게임 출판물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함과 동시에 전문 정돈을 진행한다. 이외 북경은 또 북경시 동만게임기업들을 정합하여 산업협회를 설립하고 북경에 동만게임 인재 양성기지르 설립하여 우수한 문화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고 고수준의 인원들에 대해 취업 거주증 또는 북경 호적을 해결해줄 것이라 한다.

북경시는 조만간 동만게임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미 35개 산업정책을 제출한 가운데 동만게임산업 정책이 첫 번째 발표될 정책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